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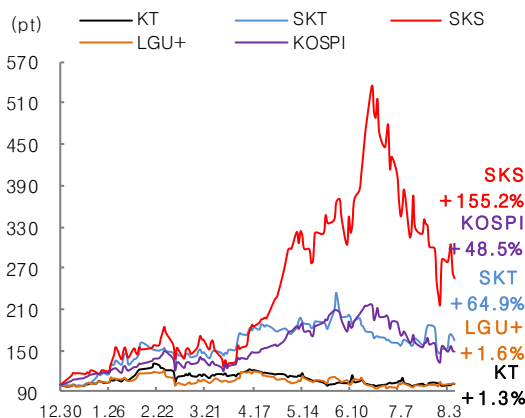
기업	25/12/30	07/31	08/07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81,400	88,200	▲ 34,700	▲ 64.9%	▲ 6,800	▲ 8.4%	3,160	3.6	
SK스퀘어 (402340)	368,000	1,038,000	939,000	▲ 571,000	▲ 155.2%	▼ 99,000	▼ 9.5%			
KT (030200)	52,600	51,900	53,300	▲ 700	▲ 1.3%	▲ 1,400	▲ 2.7%	2,700	5.1	
LGU+ (032640)	14,720	14,780	14,960	▲ 240	▲ 1.6%	▲ 180	▲ 1.2%	700	4.7	
KOSPI	4,214.2	6,595.5	6,258.8	▲ 2,044.6	▲ 48.5%	▼ 336.7	▼ 5.1%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 발표 중입니다.**
- 통신 주간 +5.2%, KOSPI -5.1%. YTD 통신 +24.4%, 지수 +48.5%. 이번 주도 지수가 부진한 가운데 통신이 아웃퍼폼
- 6/22 이후 지수의 급락 기간 동안 통신은 지수 하락시 방어와 지수 상승시 동반 상승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움직임 시현
- 이번 주 SKT와 LGU+ 실적 발표. 각각 5천억원대와 3천억원대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면서 연간 2조원대와 1조원대 이익 기반 마련
- 양사 모두 AIDC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고, 향후 성장동력으로 제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주주환원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확실한 수요에 기반한 투자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등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
- 투자 시점별 매력도: 8월 2Q 호실적과 자사주 900억원 관련한 LGU+, 10월 Anthropic 상장 모멘텀 관련 SKT, 중장기 실적 및 밸류에이션은 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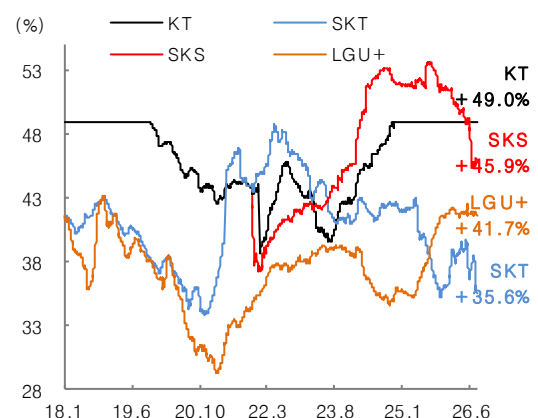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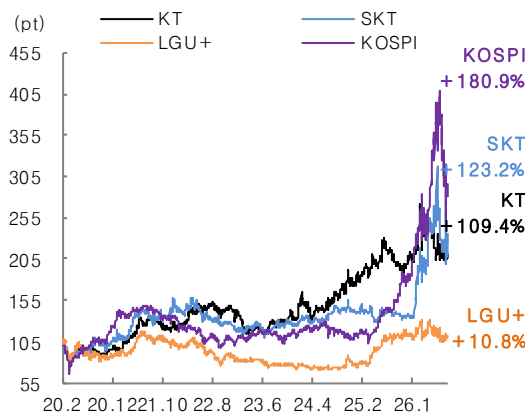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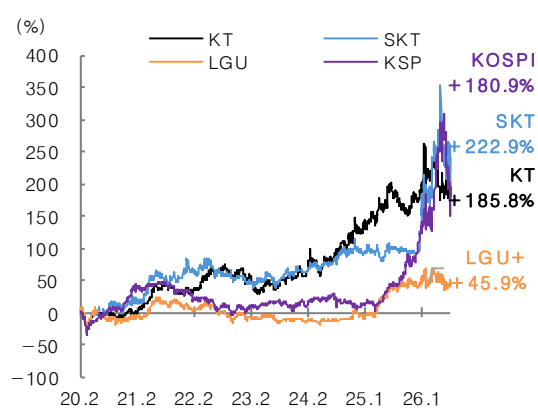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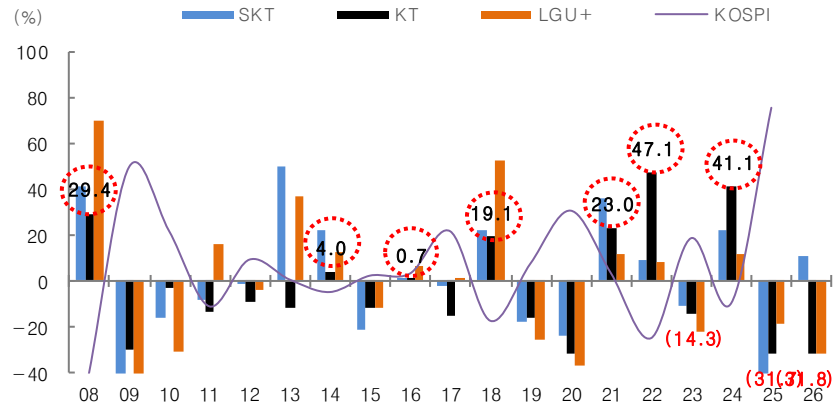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64.9%(+11.0%), KT +1.3%(-31.8%), LGU+ +1.6%(-31.6%)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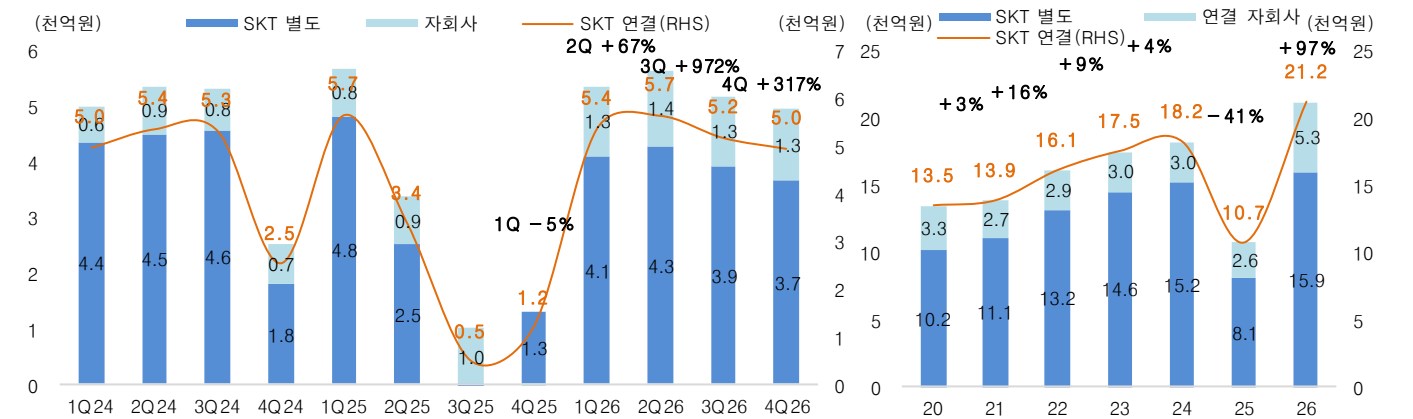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64.9	1.3	1.6	48.5	11.0	(31.8)	(31.6)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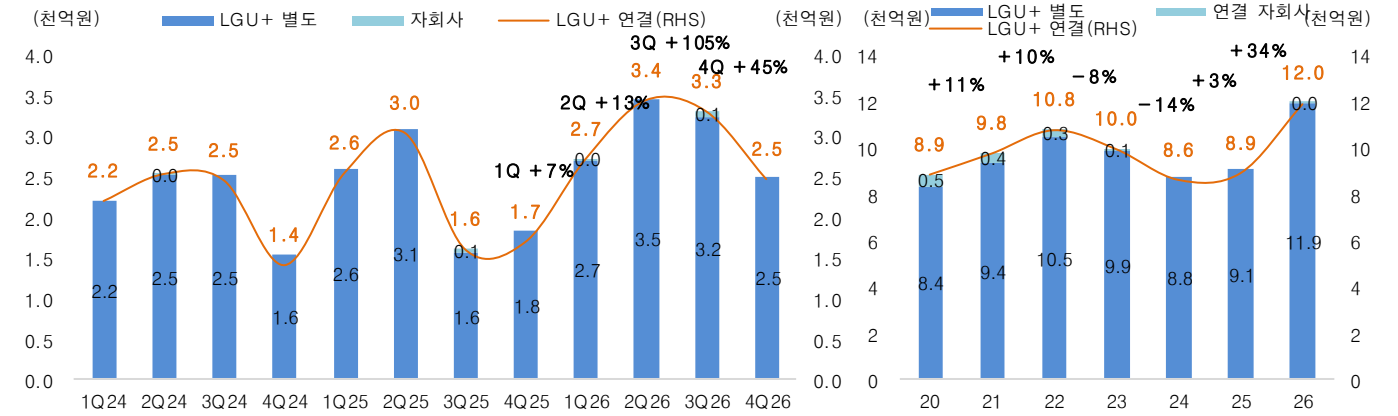
3. 2Q26 Review

SKT OP 2Q26 5.7천억원(+67% yoy), 26E 2.1조원(+97% yoy) 전망



자료: LGU+, 주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LGU+ OP 2Q26 3.4천억원(+13% yoy), 26E 1.2조원(+34% yoy) 전망



자료: LGU+, 주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주간 코멘트

5G 코어 투자, 통신사 민생 대책, LGU+ 파고네트워크스 인수, 스페이스X 통신 시장 진출, 중국 통신사 AI 토큰 사업

산업	1. 5G 모바일 코어 네트워크 투자가 처음으로 전체 모바일 코어 시장의 50%를 차지하며 LTE 중심 투자 구조 전환. 5G 단독모드(SA) 상용화와 AI 서비스 확산이 시장 성장 견인
5G 코어 투자	2. 시장조사업체 델오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코어 네트워크 시장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 14년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투자 중심축이 LTE→SA에서 5G SA로 이동 3. 델오그룹은 5G 모바일 코어 시장의 24~30년 연평균 성장률(CAGR) 전망을 기존보다 높은 12%로 상향 조정. AI 확산에 따른 저지연 서비스 수요 증가로 MEC 시장 성장률 전망도 22%로 확대 4. 5G SA 확산으로 도시뿐 아니라 교외·농촌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고 LTE 가입자의 전환이 가속화. 스마트워치·IoT용 레드캡(RedCap) 칩 도입과 특화망 확대도 5G SA 경쟁력 강화 요인 5. 5G-어드밴스드 도입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신규 기능을 지원하며 저지연 서비스와 MEC 구축 확대 기대.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모바일 코어 용량과 엣지 인프라 투자 수요도 증가 전망 6. 클라우드 네이티브 코어 전환과 3G 종료, VoNR 도입, 오픈 API, IMS 데이터 채널 등이 추가 성장 동력으로 제시. 통신사들의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와 AI 인프라 구축이 시장 확대 지속 전망
긍정적	6G 상용화는 30년경으로 전망. 하지만, 6G의 주파수 특징을 감안하면 전국망 구축 보다는 스몰셀 위주로 운영되고, 메인 N/W은 여전히 LTE와 5G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 5G SA와 5G Advanced로의 진화가 중요 - 새로운 세대로의 진화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품질 개선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자연스럽게 매출로 연결될 것
산업	1. SKT·KT·LGU+ 8월부터 멤버십 할인과 로밍, 온라인 요금제 혜택 확대, 민생 지원 강화.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 간담회 후속 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 추진
통신사 민생 대책	2. SKT는 'T데이 브랜드워크'를 신설하고 평일 브랜드 이벤트를 운영. 청년 고객 대상 CGV 영화 할인 횡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에어 요금제 가입 이벤트도 진행 3. KT는 8월 한 달간 'KT 멤버십 페스티벌'을 확대 운영하며 공향 라운지, 캐리비안베이, 롯데렌터카 할인 제공. 온라인 요금제 가입 혜택과 디즈니+ 구독팩 추가 4. LGU+는 '윙투윙' 제휴처를 52곳으로 확대하고 아웃백, 도미노피자, 쉐리, 오션월드 등 할인 강화. 가족 로밍 데이터 추가 제공과 태블릿 로밍, 익시오 무료 통화 지원도 확대 5.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통신3사 모두 해외 로밍 혜택 강화. SK텔레콤은 동남아·일본 제휴 할인, KT는 그랩 트래블패스와 저가형 로밍, LGU+는 데이터 추가 제공 중심 지원 6. 통신3사는 알뜰폰 도매대가 개선과 협력사 지원 등 상생 정책도 추진. KT는 1000억원 규모 상생협력펀드와 대리점 운영자금 조기 지급을 시행하고 SK텔레콤·LGU+도 지원책 순차 공개
긍정적	- 정부의 통신 관련 정책은, 직접적인 요금인하보다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 강화로 바뀌는 중 - 더 이상 정부의 요금인하가 통신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LGU+	1. LGU+가 운영형 보안 서비스(MDR) 전문 기업 파고네트워크스를 인수하며 보안 사업 확대 본격화. 19년 LGHV 이후 7년 만의 M&A이자 흥분식 대표 취임 후 첫 인수 사례
파고네트워크스 인수	2. 이번 인수는 흥분식 대표의 '시큐어 AI(Secure AI)' 전략 실행의 첫 단계. AI 서비스와 데이터·네트워크·클라우드 전반의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 기반 성장 추진 3. 파고네트워크스는 자체 플랫폼 '딥액트(DeepACT)'를 기반으로 위협 탐지·분석·대응을 수행하는 MDR 서비스를 제공. 금융·제조·IT 기업과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동남아 7개국에서 사업 전개 4. LGU+는 파고네트워크스의 위협 대응 역량을 전사 보안 체계에 적용하고 기업 대상 보안 사업 확대 추진. MDR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위협 정보와 대응 노하우를 활용해 보안 대응 속도 강화 5. 기존 'U+프리미엄 보안관계', 양자내성암호 인증 서비스 '알파키', 클라우드 보안 'U+SASE'에 MDR를 결합. 인증·네트워크 보안부터 위협 탐지와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 체계 구축 6.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운영형 보안 중요성이 커지는 시장 변화 대응 전략. 보안 경쟁이 솔루션 중심에서 탐지·대응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통합 보안 사업자로 사업 영역 확대 추진
긍정적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투자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산업	1.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미국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기존 통신사의 협력자에서 경쟁자로 전환. 위성망과 지상망을 결합한 독자 이동통신 서비스 구축 전략 제시

스페이스X
통신 시장 진출

2. 스페이스X는 에코스타로부터 확보한 주파수를 활용해 지상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고 '스타링크 모바일' 서비스를 추진. 위성통신을 보완재가 아닌 독립 이동통신 서비스로 확대하는 첫 공식 계획 발표
3. FCC로부터 전국 단위 D2D용 65MHz 주파수 활용 승인을 확보하고 차세대 위성 발사도 준비. 내년 말 모바일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기존 대비 100배 향상된 서비스 제공 추진
4. 미국 이동통신 3사의 연간 6,000억달러 규모 시장을 직접 공략 목표로 제시. 스타링크 안테나와 펄토셀을 결합한 방식으로 자본 효율적인 지상 네트워크 구축 전략도 공개
5. 버라이즌·AT&T·T모바일은 위성 D2D 공동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추진. 스타링크 의존도를 낮추고 위성통신 시장 주도권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 본격화

중립적

- 위성망 자체로는 속도와 간섭 및 비용 이슈 등으로 서비스가 확산되는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성망과 지상망을 결합하는 방식의 서비스 도입
- 기존 통신사들에게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 다만, 한국과 같이 도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확산이 제한적

산업

중국 통신사
AI 토큰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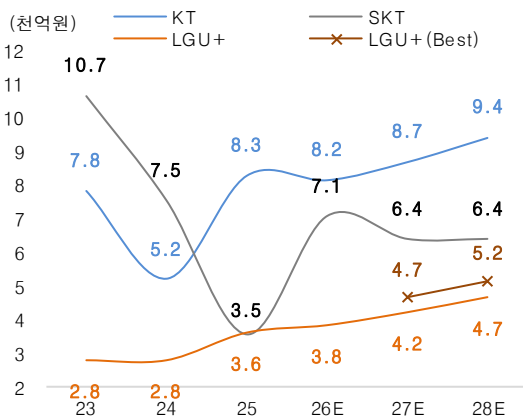
1. 중국 이동통신 3사가 AI 토큰 사업으로 올해 1분기 약 2조원 매출을 기록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 구축. 국내 통신사들도 토큰 경제를 차세대 AI 사업으로 육성하며 사업화 본격 추진
2.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유니콤의 토큰 사업 매출은 98억위안(약 2조원) 기록. 토큰 요금제 가입자는 개인 3,950만명, 기업 고객은 10.6만
3. 중국 통신사는 AI 토큰을 통신 요금제와 결합하거나 별도 상품으로 판매하는 구조 운영. AI 모델 요청 횟수와 토큰 사용량, API 호출 횟수 등을 기준으로 과금하는 다양한 상품 출시
4. 통신사는 여러 AI 모델을 중개하며 토큰 사용량을 실시간 계량·과금·정산하는 토큰 허브 역할 수행. AI 모델과 컴퓨팅 인프라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 확보
5. 국내에서는 KT가 '토큰 팩토리'를 통해 AI 토큰 생성·중개·과금 플랫폼 구축 추진. SKT는 15GW급 AI 팩토리 기반 토큰 생산 전략을, LGU+는 6G AI 네이티브 네트워크 기반 토큰 경제 모델 검토

경쟁적

- 토큰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리소스 사용의 과금 단위로 만들어낸 개념. 그 본질은 데이터
- 통신의 BM 자체가 데이터의 사용량을 측정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큰 경제학은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
- 관건은 기존 데이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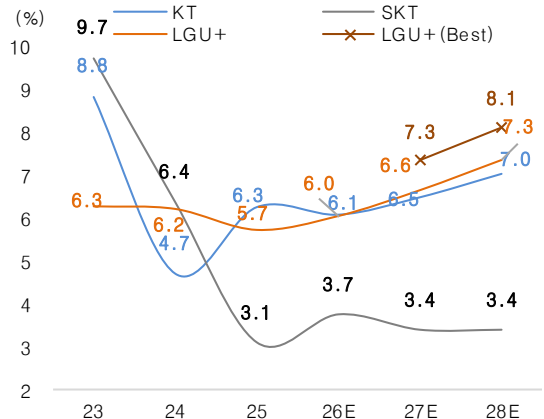
5.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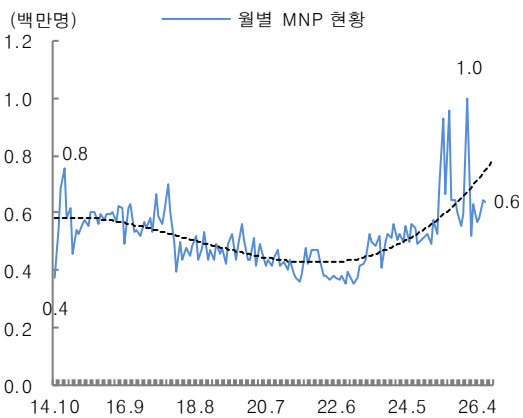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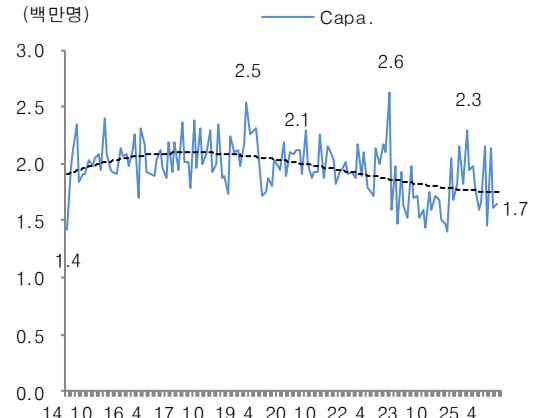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 (26.7월) 64만명, -0.7만명 mom. 25년 월평균 66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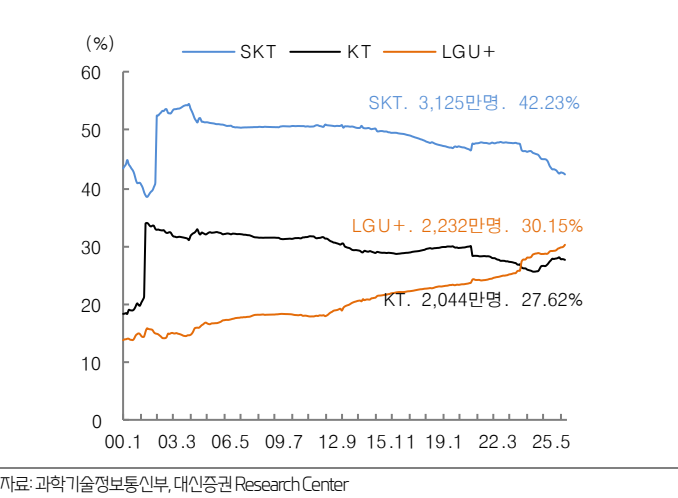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 (신규 + 번이 + 기변) 165만명 (26.5월). 24~25년 평균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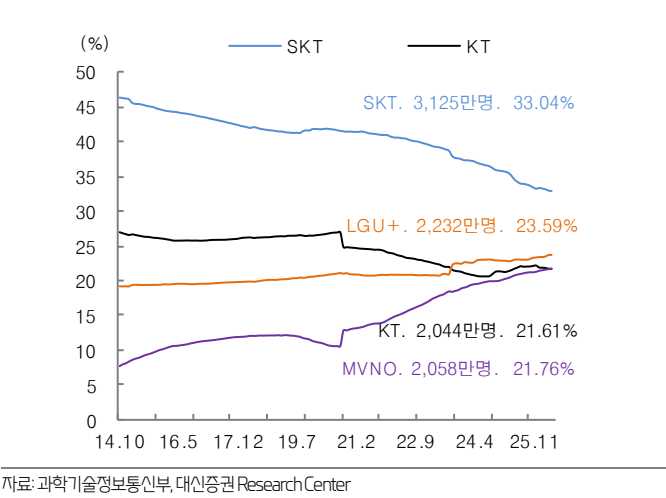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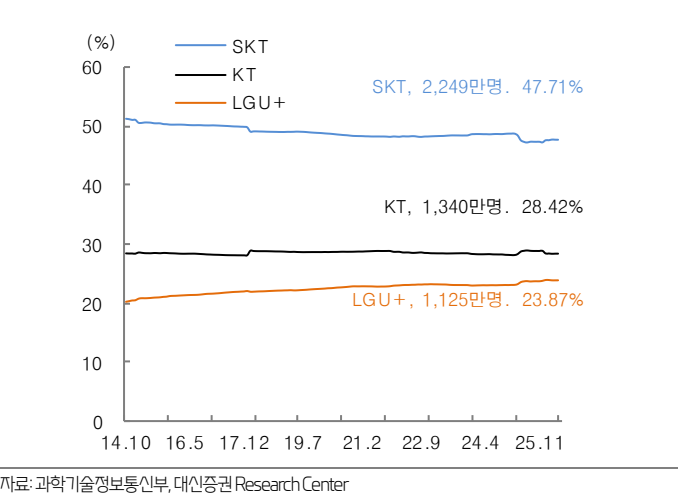
총회선 점유율(26.5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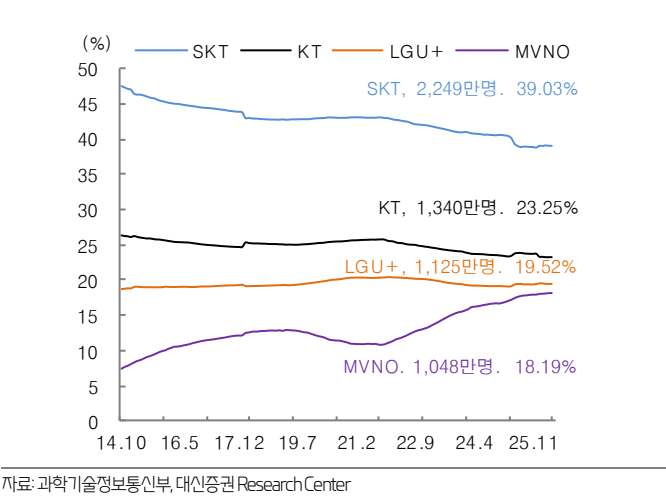
총회선 점유율(26.5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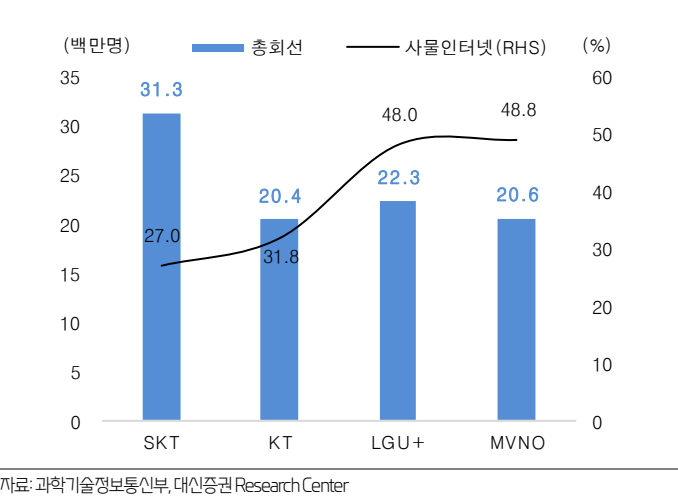
휴대폰 점유율(26.5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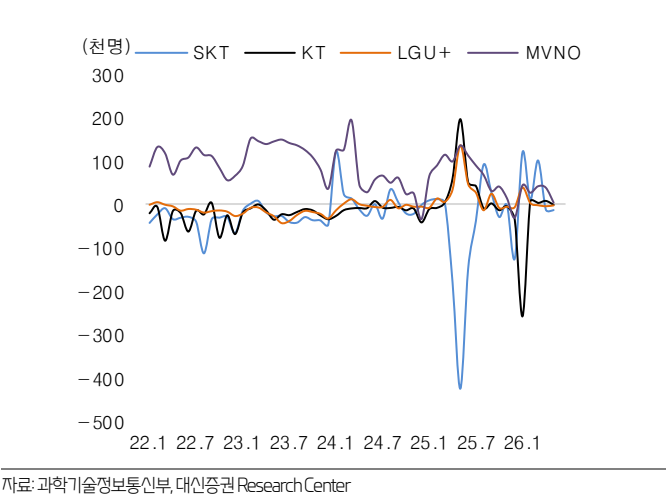
휴대폰 점유율(26.5월). MVNO 포함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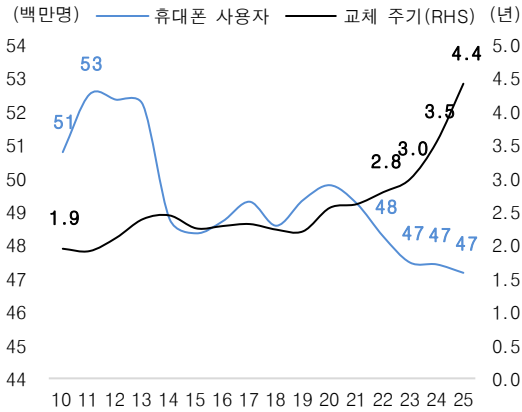
휴대폰 순증(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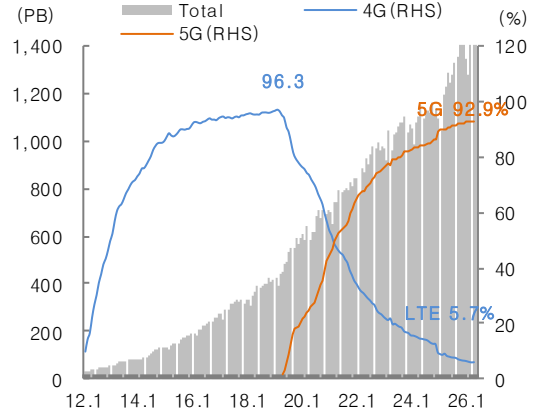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5G 트래픽 비중 92.9%(26.5월)

통신서비스 업종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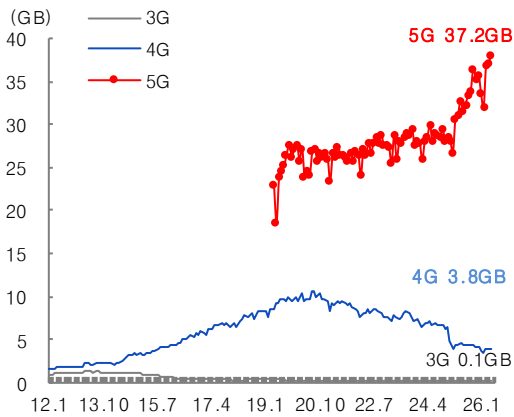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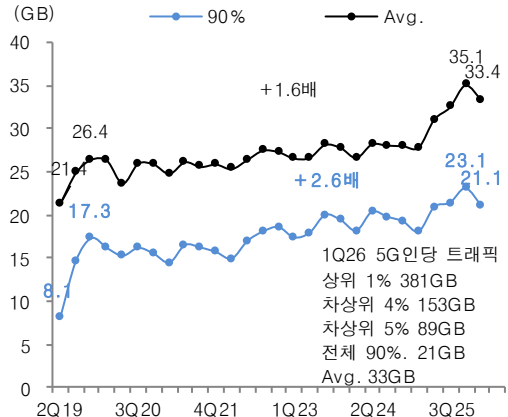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7.2GB(26.5월), +1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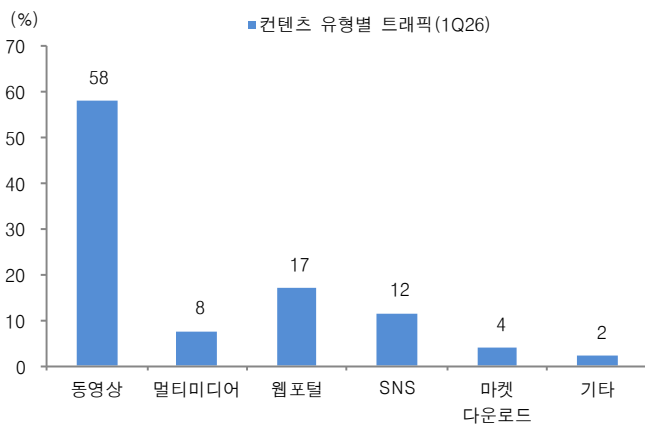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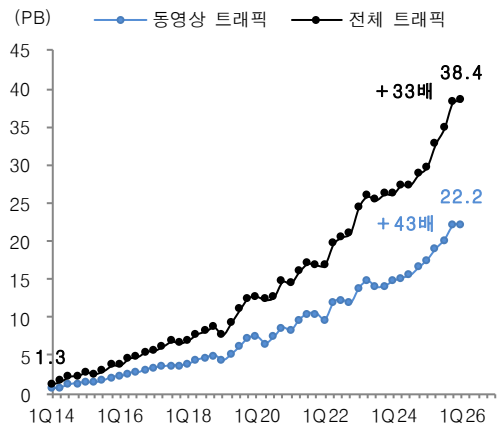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컨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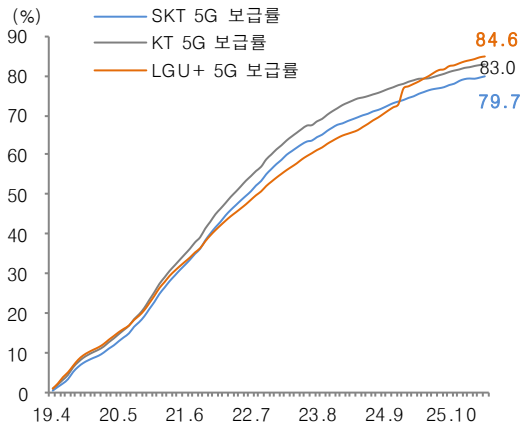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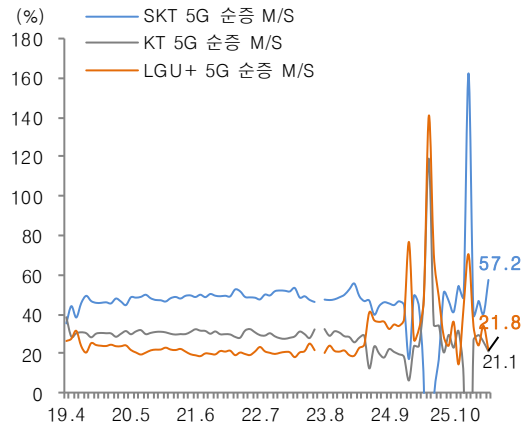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9%(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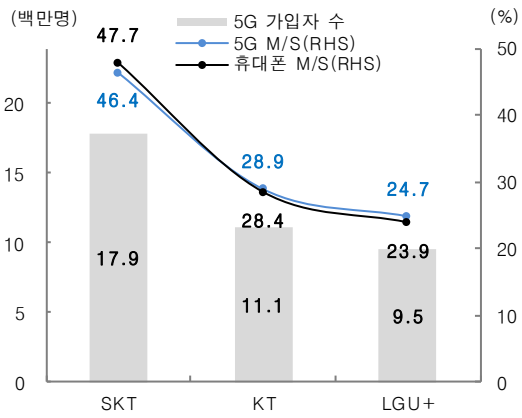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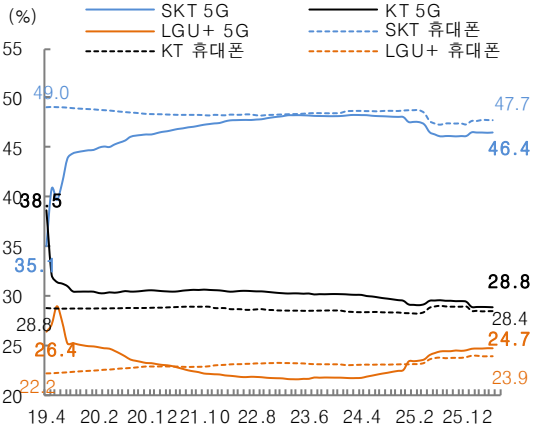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5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5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